기화성 방청필름“ 국산화"

미 · 일 합작으로 한국지러스트 설립 … 수입대체 기대

최근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기화성 방청필름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된다.
그동안 베어링 기업인 동도상사는 미국 노던과 일본 다이오가스 합작기업인 일본NIC(노던)에서 수입 · 공급해 왔으나 한국, 미국, 일본, 3국합작으로 한국지러스트라는 기화성필름 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다.
미국의 노던인스트, 일본의 대양액화가스, 한국 동도상사 합작으로 자본금 20만달러를 투자 94년3월 중 합작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합작지분은 일본 및 미국이 각각 25%, 한국 동도상사가 50%를 갖게되며 미국은 원료, 일본은 생산기술,동도상사는 판매를 포함한 제반 경영을 맡게 된다.
또한 생산은 김포에 위치한 동왕화학이라는 필름생산기업에서 임가공으로 생산할 예정이며 12월경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기화성방청필름은 미국 노던사와 NASA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기존에 사용한 방청유, 방청박스, 방청지 대신 필름재질에 방청성분을 혼합, 방청가스가 배출되면서 표면에 녹을 방지하는 것으로 기계류나 부품의 장기보관에 사용된다.
사용수지는 LDPE로 수지 95%에 방청제인 VCI(Volatile Corrosion Inhibiting) 3%를 첨가해 생산하게 된다.
현재 수입가격은 1200x150M(20KG)기준 15만~16만원선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용도는 자동차 KD부품용으로 대우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기화성방청필름 공급은 5~6개로 수요는 극히 소량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가격이 고가이고 기존에 방청유, 방청지 등을 사용하는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3/12/13>